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11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개울가에 얼음이 열기 시작한다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관찰과 분석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밭 가는 사람 1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늡음과 죽음에 대해
5. 법정 스님 흔적
 삭도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는지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그리운 추위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악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11월 1일 발행, 통권 333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개울가에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11월을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불렀다. 평원에 들짐승들의 자취가 뜸해지고 나무에서 잎이 떨어져 내린다. 지상에 무성했던 것들이 수그러든다. 그렇지만 모두 다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한동안 비웠다가 때가 되면 다시 채워질 것들이다.

11월이 내 들레에서는 개울가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달이다. 첫서리가 내린 아침 적갈색 다기를 내놓았는데, 며칠을 두고 써 보아도 정이 가지 않는다. 쓰임새도 좋고 모양도 그만한데 웬일인지 그릇에 마음이 붙지 않는다.

이 일을 두고 생각하니 인간사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오랜 세월 오며 가며 지내도 정이 가지 않고 떨어뜨린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오래 사귀지 않았는데도 서로 마음의 길이 이어져 믿고 따르는 사이도 있다. 한때는 맹목적인 열기에 들떠 결점도 장점으로 착각하기 일쑤지만 그 열기가 가시고 나면 밝은 눈으로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세월이 눈을 뜨게 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보다 나무와 꽃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산에서 살면 동물보다 식물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식물은 동물에 비해서 그 속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지극히 자연스럽다. 정직하고 진실한 덕과 시원한 그늘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나무와 꽃들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그 시기를 잘 안

다. 결코 어기는 일이 없다.

오두막 뜰가에 소나무가 네 그루 정정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중 한 나무에 전에 없이 솔방울이 많이 매달렸다. 웬일인가 싶어 살펴보니 몇 해 전 폭설로 한쪽 가지가 꺾여 나간 바람에 맞은쪽 가지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나무는 위기를 느끼고 자신의 뒤를 잇도록 씨앗이 담긴 솔방울을 많이 많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걸 보면 탐욕스런 사람들보다는 나무 쪽이 훨씬 지혜롭다. 이 산중에서 함께 사는 인연으로 단단한 물푸레나무로 받침대를 해주었다. 내가 곁에서 거들 테니 걱정 말고 잘 지내라고 일러 주었다. 그 소나무는 가지에 보름달을 올려 한밤중에 나를 불러내었다. 이래서 산에서 사는 나는 사람보다도 나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고대 인도의 위대한 왕, 아소카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국민에게 치유력이 있는 약나무와 열매를 맺는 유실수와 연료로 쓸 나무, 집을 짓는 데 쓸 나무, 꽃을 피우는 나무를 심을 것을 권장했다. 아소카 왕은 그것을 ‘다섯 그루의 작은 숲’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까지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았는가. 우리나라 기후로는 입동 무렵이 나무를 옮겨 심기에 가장 적합한 때다. 그리고 나무들이 겨울 잠에 들기 시작하는 이때가 거름을 주기에 알맞은 때다. 나무를 심고 보살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2008년 11월.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관찰과 분석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와 인생에 대해 행한 지적 작업은 주로 관찰과 분석입니다. 투철한 관찰로 사실대로 보았고, 치밀한 분석으로 대상을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5온蘊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색色은 물질과 현상을 말합니다. 수受는 감각, 상想은 표상 작용, 행行은 쾌·불쾌에 의해 일어나는 충동, 식識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육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작용으로 분해합니다. 색은 물질적 요소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화합하여 인간을 이루었다고 보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연기緣起의 법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

존재와 현상의 상관관계를 말한 것인데, 이것이 연기의 공식입니다.

집안에 걱정 근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꼼꼼이 분석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이런 걱정 근심이 생겼는가.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근원은 아무것도 아닌 데에 있습니다. 한 생각 내가 잘못 먹은 데서, 조금 삐딱하게 먹은 데서, 시작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밭 가는 사람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마가다국 남산에 있는 ‘한 포기 띠[茅]’라고 하는 바라문 촌에 계셨다.

그때 밭을 갈고 있던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씨를 뿌리려고 오백 개의 쟁기를 소에 매었다.

스승께서는 오전 중에 바리때와 가사를 걸치고, 밭을 갈고 있는 바라문 바라드바자에게로 가셨다.

때마침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으므로 스승은 한쪽에 섰다.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음식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스승을 보고 말했다.

“사문이며,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불교 경전의 첫머리에 항상 시작되는 구절이다.)

(*사문은 당시 힌두교 정통 사제인 바라문의 권위와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강변과 숲속에서 자유롭게 수행하던 자유사상가적인 수행자이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바라문이며,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바라문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고타마의 쟁기나 호미, 작대기나 소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이때 밭을 갈던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시詩로써 스승에게 여쭙었다.

76 “당신은 농부라고 자처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밭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당신이 밭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오.”

77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에게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쟁기와 호미, 부끄러움은 호미 자루,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호미 날과 작대기입니다.

78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매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내 소를 쟁기에서 떼어 놓습니다.

79 노력은 내 소이므로 나를 절대 자유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80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 이슬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단 이슬[田露]’은 죽지 않는 것[不死]을 뜻한다.)

이때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커다란 청동靑銅 그릇에 우유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께 올렸다.

“고타마께서는 우유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단 이슬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81 “바라문이며, 시를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눈뜬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시를 읊어 얻은 것을 눈뜬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바라문이며, 법도를 따르는 이것이 바로 눈뜬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여기서 ‘시를 읊어’란 설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설법을 하고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82 완전에 이른 사람, 위대한 성자, 번뇌의 더러움을 다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시켜 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바치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공덕을 바라는 이에게 더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타마시여, 이 우유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

야 합니까?”

“바라문이며, 신, 악마, 범천(梵天)들이 있는 세계에서 신, 인간, 사문, 바라문을 포함한 여러 중생 가운데서 완전한 이룬 사람(如來)과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며, 이 우유죽일랑 생물이 없는 물속에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그 우유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 버렸다. 그런데 그 우유죽을 물속에 버리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끓어올랐다. 마치 온종일 피약(皮藥)에 쬐여 뜨거워진 호미 날을 물속에 넣었을 때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이는 것과 같았다.

이때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온몸이 오싹하여 두려워 떨면서 스승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스승의 두 발에 머리를 숙이며 여쭙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타마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具足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바라드바자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를—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 없는 상태

가 된 것인데—이 생에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바라드바자 장로는 성인(聖人)의 한 사람이 되었다.

[강론]

예전부터 출가 수행자는 생산직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도에서는 베다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다. 만약 출가 수행자가 농사를 짓거나 혹은 뭍 만들어 파는 일에 종사한다면 그는 청정한 출가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가 없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땀 흘려 애써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놀고먹는 무리가 어찌면 사회의 기생충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같이 생산직에만 종사한다면 그 사회는 조화를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병들고 말 것이다.

각자 기능과 역할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인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사회 구조이고 보면, 사람마다 주어진 개인의 직능과 의무 혹은 사명이 곧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한몫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종교학자는, 사람의 얼굴로써 비유를 들면서 종교는 마치 눈썹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먹고, 코는 숨 쉬고 냄새 맡는다. 눈썹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썹은 눈을 보호한다. 그리고 뺨보다도 눈썹이 없으면 사람의 얼굴이 될 수 없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늡음과 죽음에 대해

이 글은 법정 스님께서 1998년 11월 1일에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으로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호에서 계속 됩니다.

우리 몸이 세월이 흐르면 달라집니다.

그전 같으면 말짱할 텐데 조금 빠긔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다가 충격을 받으면 탈이 납니다. 평소 몸을 움직여 버릇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남한테 일을 시켜 버릇 하면 우리 능력이 자꾸 소멸되고 빠가 약해져서 걸뻗 하면 그런 골절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뼈를 사용하는 적당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뼈 속에서 칼슘이 용해된대요. 이게 피 속으로 흘러 나가 대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실험을 통해 이런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심장의 수축 작용에 의해 혈액 양이 또 감소된다고 해요. 따라서 피 속 적 혈구도 그 용량이 감소된대요. 그래서 더욱 노화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몸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와 같은 증상을 의학 용어로 폐용 증후군, 쓸모없어서 한쪽으로 제껴 놓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폐물 증후군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폐차장에 쌓아 놓은 자동차의 잔해를 연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나 훈련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몇 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내가 나이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데 세어 보니 벌써 예순다섯 살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노년기입니다.

장을 보러 가면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할 아버지라고 불려요. 처음에는 그 소리 듣고 충격 받았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들려요.

처음 할머니나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면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하고 저항감 같은 것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주 질서예요. 그런 사회적 인습이나 육신의 호칭에 우리는 팔릴 필요가 없어요.

20대 30대도 늡음이 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 60대 70대에서 청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상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의해 실질적인 연륜이 달라지는 것이지 육신의 나이에 의해 이견 노년기다 청년기다 장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있으면 누구한테 일을 시키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합니다. 여럿이 살면 후배들한테 맡길 일도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다 해요. 장작도 패고 밭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 별로 지칠 줄을 몰라요.

좋은 산천에 사니까 그 산이 지니고 있는 기운을 받아 들이기 때문에 여럿이 어울려 살 때보다 훨씬 건강 상태가 좋기도 해요.

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적당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년퇴직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한가하게 노인정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처신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이 해소되어 버려 폐물 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늡음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 수 있으면 돼요. 내 나이가 몇이라든가 또 손주가 몇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틀에 갇혀서 사람으로서 충분한 활동력이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체적 활동만이 아니라 두뇌 활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작용을 맡은 대뇌 반구도 나이 들면서 위축이 된대요. 그 대뇌 속에 있는 세포도 자극을 줘서 사용하지 않으면 세포는 있어도 활동이 쇠퇴된다고 해요.

따라서 노인이 손발을 쓰지 않고 지능을 개발하고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게 되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할 일이 있게 되면 늘 의식이 활동하고 있고 손발을 쓰고 있는 한은 그게 더 답입니다. 이게 의학적인 통계예요.

내가 자꾸 늡음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그런 삶의 자세를 갖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1월입니다. 계절만 11월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세월도 11월이에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피할 게 아니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법정 스님 흔적



삭도

은사 스님은 삭발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맑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셨습니다.

삭발을 자주 하시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삭발을 하면 그때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다.

불쾌한 일이 있으면 그 생각을 씻어 버리기 위해 나는 또 삭발을 한다. 삭발하고 목욕하고 난 뒤면 개운하고 활기분해져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은 의욕이 솟는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과거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현재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다.”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는지

선재동자는 구족 청신사를 보고 그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청신사가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무진 복덕장 해탈문을 얻었으므로, 이와 같이 작은 그릇 하나만으로도 중생의 갖가지 요구에 따라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그들 모두를 배부르게 한다. 하지만 시방세계의 중생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 모두 배부르게 해도, 이 음식은 다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음식으로 그러하듯이 갖가지 좋은 맛, 갖가지 자리, 의복·침구·수레·꽃향기, 갖가지 가재 도구들도 좋아하는 대로 모두 가득 채워 준다.

또 가령 동방의 어떤 세계에 있는 성문이나 독각이 내 음식을 먹으면 모두 성문이나 벽지불과^{辟支佛}를 얻어 최후신^{最後身}에 머문다. 동방이 그러하듯이 남방 서방 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그와 같다. 또 무수한 세계에 있는 일생보처 보살이 내 음식을 먹으면, 모두 보리수 아래 도량에 앉아 마군의 행복을 받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다.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이 동녀들을 보는가?”
“보고 있습니다.”

“선남자여, 이 동녀들이 상수^{上首}가 되듯이, 이와 같은 백만 이승지 권속들이 모두 나와 함께 행이 같고 원이 같고 선근이 같고 벗어나는 길이 같다. 청정한 이해가 같고, 청정한 생각이 같고, 청정한 길이 같고, 한량없는 깨달음이 같고, 모든 감관을 얻음이 같고, 광대한 마음이 같고, 행하는 경지가 같고, 이치가 같고, 뜻이 같고, 분명히 아는 법이 같고, 깨끗한 모습이 같고, 한량없는 힘이 같고, 끝까지 정진함이 같고, 바른 법음이 같고, 종류를 따르는 음성이 같다. 청정하고 제일가는 음성이 같고, 한량없이 청정한 공덕을 찬탄함이 같고, 청정한 업이 같고, 청정한 과보가 같다. 대자^{大慈}가 두루 해 모든 것을 구호함이 같고, 대비^{大悲}가 두루 해 중생을 성숙시킴이 같고, 청정한 몸의 업이 인연을 따라 모은 것이 보는 이를 기쁘게 함이 같다. 청정한 입의 업으로 세상의 말을 따라 법으로 가르침이 같고,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나아감이 같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서 부처님들께 공양함이 같고, 모든 법문을 나타내 보임이 같고, 보살의 청정한 행에 머무름이 같다. 선남자여, 이 수많은 동녀들은 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 한 찰나에 시방세계에 두루 가서 최후신을 받은 보살과 성문·독각들에게 공양하며, 여러 아귀들까지도 모두 배부르게 한다. 이 동녀들이 이 그릇을 가지고 천상에 가면

천인들을 넉넉하게 먹이고, 인간에 가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다. 잠시만 기다리면 그대가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할 때 끝없는 중생이 사방의 문으로 들어오니 모두 가이 청신사의 본래 소원으로 청한 이들이었다. 청신사는 들어오는 이마다 자리를 펴서 앉게 하고, 그들의 뜻대로 음식을 주어 모두를 배부르게 했다. 그리고 나서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나는 다만 이 무진 복덕장 해탈문을 알 뿐이지만, 저 보살 마하살들의 모든 공덕은 큰 바다와 같아 그 깊이가 한이 없다. 허공과 같아 드넓기 끝이 없고, 여의주와 같아 못 중생의 소원을 다 만족케 하고, 큰 마을과 같아 구하는 것을 거기서 모두 얻고, 수미산과 같아서 온갖 보배가 두루 쌓여 있다. 깊은 고방과 같아 법의 재물을 항상 쌓아 두고, 밝은 등불과 같아 어둠을 없애며, 높은 양산과 같아 중생을 가려 주는 일들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을 다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남쪽으로 가면 대흥^{大興}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 명지거사^{明智居士}가 있다. 그대는 그를 찾아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떠났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그리운 추위

장갑을 끼어도
손이 시린 겨울
털양말 신어도
발이 시린 겨울
동상 걸린 발로 괴로워해도
겨울은 나를 강하게 했다
힘든 것을 견뎌 내는
지혜를 주었다

추위가 없는 겨울엔
추위가 그림다

나의 삶에서
탄력을 앗아 가는
편리하고 편만한 겨울을
문득 원망해 보는 오늘



숲에는 질서와 휴식이,
그리고 고요와 평화가 있다.
숲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안개와 구름, 달빛과 햇살을 받아들이고,
새와 짐승들에게는 깃들일
보금자리를 베풀어 준다.
숲은 거부하지 않는다.
자신을 할퀴는 폭풍우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 숲이 지니고 있는 덕이다.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학 장학생 하반기 장학금 지급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2022년 제3기 대학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난 5월 29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상반기 150만 원, 하반기 150만 원 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2022년 18명 선발자 중 중복 수혜, 중도 포기로 총 15명). 장학생 15명은 마음, 세상, 자연 3개 조로 나누어 서로 교류하고, 맑고 향기롭게 취지에 맞춰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사무국에서는 각 장학생들의 상반기 성적과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하여 11월 8일 하반기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3년 탁상 달력 우편 발송 안내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2023년 탁상 달력을 11월 말~12월 초에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후원이 없지만 11월~12월 말 중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은 2023년 1월 중순에 별도로 발송해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후원회원님에게 연말 감사 선물로 2018년부터 탁상용 달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중에 개인적 이유로 우편물 수신을 거부하여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중앙 모임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벽걸이 달력이 필요한 분은 길상사 창건기념법회일(12월 11일 일요일)부터 길상사 중무실에서 수시로 나눠드리니 방문하여 받아 가십시오. (우편 발송은 불가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 반찬 나눔 조리 활동은 현재 매주 목요일 진

행 합니다. 평균 30~40명의 봉사자가 반찬을 조리하여 결연가정 460가구에 전달합니다. 장기간 조리 활동이 중단되었던지라 봉사자 인원이 줄어들어, 근래에는 목요일에 반찬 1종류만 조리하고, 대체식품 1종류를 구입해 진행했습니다. 봉사자 인원이 늘어나면 예전처럼 목, 금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반찬 조리 나눔 메뉴는 9월 4째주 닭갈비, 육개장, 10월 1째주 달걀장조림, 전복죽, 쌀국수, 10월 2째주 참나물, 열무김치, 감자탕이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도움 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모임에서는 이 외에도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활동은 매주 목요일 9시 2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에서 진행합니다.

연말 김장 나눔은 최근 배추 수급 문제와 김장 재료값 상승, 코로나로 인한 봉사자 감소로 인해 함께 모여 김장을 담가서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자 자원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에서는 매주 월요일 종로구 안국역 부근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급식 자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식탁 정리, 수저 전달, 배식, 식기 세척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만발식당 모든 봉사자들이 항상 건강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3종교 연합 사랑 나눔 바자회 참여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에서는 10월 15일(토)에 성북동 진입로에서 성북동 성당이 주관하고, 길상사, 덕수교회가 주최한 종교 연합 '사랑 나눔 종교 연합 바자회'에 동참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진행하지 못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3종교 연합 바자회의 취지는 3종교가 화합하여 3,000만 원의 수익금을 모아 성북구 관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에서는 친환경 수세미, 기증받은 인형, 다포, 도서 등 녹색장터 물품을 준비했고, 그 수익금은 사랑 나눔 바자회 기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신도들이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저마다 먹거리 장터, 농수산물 및 업체 협찬 물품의 직거래 장터, 각종 재활 물품의 베품시장, 행운권 추첨 등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길상사 생태 사찰 가꾸기 자원 활동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길상사 생태 사찰 가꾸기 활동은 지난봄부터 가을까지 화단 물 주기, 잡초 제거, 비료 주기, 꽃무릇 알뿌리 덮어 주기, 수국 꽃대 정리와 가지치기, 백작약 모종 심기, 누린내풀 정리 작업, 비비추 마른 잎 제거 등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꽃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여 10월 17일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무더위와 많은 비가 내린 습한 날씨에도 많은 꽃과 식물들이 저마다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따스한 애정의 손길을 보태 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받고 싶은 분에게 손편지 답장을 해드립니다

길상사 경내 가장 위쪽에 있는 '법정 스님 진영각'에는 매일 많은 분들이 방문해 스님 진영에 삼배를 올리고, 소소하게 전신된 유품을 관람합니다. 잠시 뒷마루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달래기도 하고, 방명록에 저마다의 가슴속 이야기를 묵묵히 남겨 놓곤 합니다. 방명록과 더불어 소소한 고민을 적을 수 있는 '공감 엽서'와 '항기 우체통'을 배치해 두었는데, 익명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과 사연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사연을 '항기 우체부' 봉사자들이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은 후 정성껏 답장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항기 우체부 봉사자들은 사연을 읽고 답장을 쓰다 보니 손편지라는 매개체가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다라니 다원(지장전 전각 1층)에도 '항기 우체통'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조용히 차 한잔 마시다가 이런저런 고민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공감 엽서에 사연을 적어 항기 우체통에 넣어 두면 항기 우체부 봉사자가 손편지 답장을 해드릴 것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 제안 게시판에 이용하시거나 전자우편(clean94@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11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수)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책 읽기 소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항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 오전 10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9시

30분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중앙 사무국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옥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

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옥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코로나19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각 지부 사무국에 문의.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11월 5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극락전, 설법전 및 극락전 마당 천막에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며 개인별 발원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 9월~11월 다라니기도는 입시생을 위한 특별 축원도 포함되오니 2023학년도 수능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기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 추계관음기도 회향

● 일시 : 11월 7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안거 결제

● 일시 : 11월 8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입시기도 회향

● 일시 : 11월 1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관음재일

● 일시 : 11월 1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불교 입문 신도 기본 교육

● 수강료 : 3만 원 ● 시간 : 13:30~15:50 ● 장소 : 설법전

기수	날짜	비고
43기	11월 16일, 23일(수)	총 2주 과정

● 경전반 능엄경

● 수강료 : 5만 원 ● 시간 : 13:30~15:50 ● 장소 : 설법전

날짜	비고
11월 13일, 20일, 27일 12월 18일, 25일	총 5주 과정 (매주 일요일)

●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11월 5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지장재일	11월 11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1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11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